

행복도시 미개방 공원, 시민품으로!

- 행복도시 미개방 공원 9개소 합동점검 완료... 보완 조치 후 순차 개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조상호)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조성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원들을 시민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권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공원의 원활한 관리권 이관과 안전한 공원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나성동(2-4생활권) 독락정 역사공원, 반곡동(4-1생활권) 수변공원, 산울동(6-3생활권) 문화공원 등 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상태와 수목 생육 환경, 안전시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생육상태가 나빠진 나무의 교체, 구간별 식재 추가 등의 보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시원한 그늘과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관 전까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반곡동 수변공원과 산울동 문화공원을 우선 개방하고, 나성동 독락정 역사공원은 2027년 1월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생활권의 공원 개방이 확대되면서 생활권 내 녹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앞으로도 행복청·세종시·LH 합의를 통해 시민들이 조속히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개

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용 세종시 정원도시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방 전까지 완벽히 보완해 인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녹색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유지·관리에 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관리권 이관 및 개방 예정 공원 위치도

담당 부서	행복청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건축과	책임자	과 장	최시복 (044-200-3160)
		담당자	사무관	유찬석 (044-200-3162)
	세종시 환경녹지국 정원도시과	책임자	과 장	최근용 (044-300-6860)
		담당자	사무관	정종남 (044-300-6861)



□ **종합위치도**



□ **나성동(2-4생활권) 독락정 역사공원**



☐ 반곡동(4-1생활권) 수변공원



☐ 산울동(6-3생활권) 문화공원

